반응만 해도 죽어간다

(역대상 26:1~32)

12.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13.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14. 셀레먀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15. 오벧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16. 숩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래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17.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여섯이요 북쪽 문에 매일 네 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네 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18.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네 사람 그리고 뜰에 두 사람이라
19. 고라와 므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반응만 해도 죽어간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반응만 해도 죽어간다'
제목에 역설이 들어있습니다. 반응은 살아있음의 가장 큰 특징인데 반응하면 죽어갑니다. 이 죽음은 세월이 흘러 자연스럽게 죽어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닌 독특한 의미를 가진 죽음입니다.
영동 고속도로에 차를 몰고 가다보면 "응답하라 2018"이라고 쓰여 있는 간판을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를 몰랐는데 현재 강원도의 관심은 동계올림픽입니다. 특히 강릉과 평창은 동계올림픽을 잘 치르는 것과 올림픽 이후에 많은 시설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관심거리입니다.
처음에는 '응답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드라마의 제목이었고 '응답하라 1997, 응답하라 1994, 응답하라 1988'이라는 시리즈였습니다. 이 드라마의 제목이 무슨 뜻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삶을 본질적으로 표현할 때에, 이 응답하라는 단어가 핵심중의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은 응답하라는 소리로 가득 차있습니다. TV에서는 수많은 광고가 나오지만 결국 모든

광고는 시청자에게 응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응답으로 반응을 보여서 광고에 나오는 화장품이나 자동차나 냉장고 등을 사라는 것입니다. 작가들이 책을 쓰는 이유도 독자에게 응답하라는 것이고, 교수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유도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이 TV에 나와서 진땀 흘리며 연기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이고, 정치인들이 대중들 앞에서 호소하는 이유도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 앉아 대화를 할 때에도 내 말에 응답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생 자체를 본질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응답하라는 말이 성경 말씀으로 오면 변합니다.

요8:26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라는 말은 내가 너희를 보고 있으면 반응할 내용이 많지만, 반응하지 않고 나는 오직 하늘의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것을 말할 뿐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과 주변 환경과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반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 사람을 보고 계시는 아버지께서 지시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셨을 뿐입니다.

이어서 28절을 보면 "…내가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오감으로 들어오는 모든 감각에 대하여 스스로 반응하지 않으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지시하시고 가르쳐주시는 대로 말씀하고 행동하셨는데 응답이 죽고 반응이 죽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그 물음에 응답을 하신 것도 실상은 그 질문을 들으신 하나님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넣어주신 말씀으로 대답하신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앞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들의 상태를 보고 반응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넣어주신 말씀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갈2:20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입니까?

'내가 사는 것이라'는 말은 육체의 오감을 통해 마음 안에 들어오는 감각재료에 대해 반응하며 사는 것을 뜻합니다. 반대로 '내가 살지 않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고, 오감의 관문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감각재료들에 대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에 모신 주님께서 반응하시기를 바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반응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응하지 않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읽으면 읽을수록 참 경이롭습니다. 우리는 신론, 구원론, 인간론, 성령론, 교회론 등을 체계화해서 신학을 합니다. 저는 조직신학을 공부했는데 역대기를 읽으면서 따로 조직신학책이 필요할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에스라는 굉장한 조직신학자입니다. 또한 역사 신학자들처럼 역사적 사건들을 가지고 조직신학을 말하고 있는데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이 성전관련체계를 조직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레위인의 이야기가 중심에 있으면서 22장에서는 금 십만 달란트와 은 백만 달란트가 준비되었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성전을 내 것으로 삼고 생활화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비유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23장에서는 우리 돈으로 환산해서 1경 3,500조 정도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 정도를 손에 쥐었을 때의 누리는 대단한 기쁨을, 적어도 성전을 생활화하고 성전의 의미를 완성한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사람은 그 기쁨을 누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 생활화를 마치 레위인이 성전 봉사를 평생의 직업으로 삼았던 것처럼 십자가 생활화를 평생의 직업으로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24장에서는 이십사 반차로 나누어서 봉사하는 제사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또한 그들처럼 십자가 생활화를 직업으로 삼고 이 땅에서 하늘을 연결하는 커넥티드 맨으로 살아야 함을 전했습니다.
25장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찬양대 결성을 통하여 입만 열면 십자가 노래를 부를 정도로 십자가에 사로잡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26장에서는 레위인들 중에서 성전의 동서남북의 문과 곳간과 성전 뜰을 지키는 문지기들을 세웁니다. 성전에는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이 있었는데 성전 곳간은 제사에 쓰이는 기구들을 보관하는 곳이고, 성물 곳간은 백성들이 바치는 십일조와 예물 그리고 전쟁에서의 전리품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또 곳간지기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흩어져 살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레위인을 보내서 관원과 재판관을 세우고 또 율법교육을 담당하게 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선 성전 동서남북의 문과 뜰의 성전 문지기와 곳간 문지기를 세웠다고 합니다.
성전은 부정한 사람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한 물건들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한 마디로 세속에 물든 것들이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성전의 기본 존재 의미는 하늘이 내려와서 세상으로 퍼지며 침투하는 곳이기에 세상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전 문지기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성전은 오늘날로 가져오면 우리 마음의 모양을 외형화 시켜 놓은 곳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의 법궤가 상징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지성소

에는 가장 소중한 것, 생명과도 같은 것 즉 궁극적인 만족을 줄 수 있으리라고 믿어지는 존재의 이름을 담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소에 있었던 분향단과 떡 상과 등대의 구성요소가 마음에도 있어서,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추구하여 배 부르려 하고 그로 인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전에 문지기를 두었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오감의 관문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감각재료들이 들어오게 되므로 문지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의 자극에 반응하지 않도록 문지기를 세우는 것인데 반응의 내용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반응 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마음은 디바인 화이트 즉 하나님의 흰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들어오셔야 하는데 그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지성소에 돈을 넣을 수도 있지만 돈 자체는 인격체가 아닙니다. 또한 인격체로서 자녀나 애인 등을 담고 그에 대한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관계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절대 인격체로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인격체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은 육체의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감각재료들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지성소에 모신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키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의 지성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만을 모셨습니다. 그 이름이 가리키는 아버지는 하늘에 계십니다. 그 분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을 첫째 의무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매우 바쁘십니다. 우리도 어느 한 가지 일에 몰두 할 때에는 다른 일에 제대로 반응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업이 바쁘다보면 대한민국이 최순실 게이트로 난리가 났든지 어쩌든지 마음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께 반응하시는 일에 바쁘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모든 인간들에 대해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의 생애를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자발성과 선택함을 보여드릴 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선이자 최고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것들을 마음으로 끌어안고 반응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내 생애의 계획은 한 발씩 빗겨나가기 시작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오리지널하게 정해놓으신 내 생애의 모든 계획들이 계속해서 죽어갑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하고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터에 나가게 되더라도 맞서게 될 강력한 문명국들의 자극에 반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므로 기록된 글자를 보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응답하느라 바빠서 눈앞에 쳐들어오는 적군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못할지라도, 그 적군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획하신 오리지널한 계획을 이루어 가실 수 있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치우치지 않으려면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접하게 되는 모든 삶의 환경과 사건에 대해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반응할수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내 인생의 오리지널한 최선의 모습은 망가지고 죽어가게 됩니다. 좌로 치우치는 것은 싫어함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우로 치우치는 것은 좋아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곳간을 지키는 문지기를 뽑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육체의 오감의 관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세상의 감각재료들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혼란스럽습니다마는 TV뉴스를 보면서도 마음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삶의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자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남편과 아내에 대해 반응하지 않음으로서 곳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곳간을 지킨다.’는 말의 핵심은 하나님께 드림과 하나님의 뜻의 쓰임입니다.
곳간은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 곳간 문 바깥으로 나가면서 지출되거나 사용됩니다. 이상한 것은 우리가 오감의 관문을 통하여 우리 마음으로 쇄도해 들어와서 응답을 요구하는 모든 감각재료들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내가 반응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곳간에 전리품이 보관되듯이 하나님의 마음 곳간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반응하면 내가 끌어들여서 내가 주인이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끌려지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방출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쓰임을 받게 되는데 신기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들을 관원과 재판관이 되게 하셨는데 이것은 성전이 보이지 않는 곳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성전의 존재를 상기시키는 것이 주의무요 주목적이었습니다. 성전을 마음에 담고 살게 해줍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이 보이지 않는 삶의 현장에서 성전을 선포하고 성전을 말하면서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은 사실 성전의 존재의미를 생활에 적용하므로 삶의 현장에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상황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이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속한 단체를 이끄실 때에 그 사람을 기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과 같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파견되어 레위인으로서 관원과 재판관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회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반응하기에 바빠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생각하고 성전 의미의 완성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에 내 주변의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마음을 따라 행동하게 되고, 그 사람이 비록 대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장이 아닌 그 대리를 중심으로 회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럿이면 또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단체를 조화롭게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에 바빠서 반응할 시간이 없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자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 있고, 또한 그들의 살고 있는 영역이 대한민국과는 무관할 정도로 좁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들이 하나님 통치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또 다시 갈라디아서 3장 1절의 말씀을 주목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바빠야 오감의 관문을 통해 들어오는 감각재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응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오리지널한 내 생애는 죽어가고 좌로 우로 치우치며 벗어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죽었다고 고백하는 자는 세상에 대해서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 때에 나를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내 생애의 오리지널한 계획이 하루하루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또한 그럴 때에 나의 삶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생의 시간들을 사용해나가실 것이고 나를 중심으로 통치해 나가실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기를 원할 필요도 없고, 중심이 되는 것을 대단하게 자랑스러워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마음을 보내느라 세상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을 중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반응하면 우리 생에 대한 하나님의 오리지널한 계획은 죽어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너무나 바빠서 오감의 관문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감각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